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 -새부모·새자녀관계를 중심으로-

Family Program Development Direction for Step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with Adolescents at Home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김효순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Hyo-Soon Kim(neri9657@sjcu.ac.kr)

요약

사회변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는 재혼 가능한 층으로 이어져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재혼가족 고유의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혼가족의 관계향상 가족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파악된 국내외 재혼가족의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이론적 내용 및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재혼가족 초기에 재혼가족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 외에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이 관계향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방지,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재혼가족 | 프로그램개발 | 가족관계 |

Abstract

The number of stepfamilies is rapidly growing in our societ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So family programs especially for stepfamily relationship enforcement with adolescents at home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family programs for enforcing the stepfamily relationship between stepparents and stepchildren. For the purpose, case studies from those stepfamilies were analyzed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and early developed program contents were referred. Based on discussion mentioned above, program development direction for stepfamily relationship enforcement is not only dealing with difficulties of stepfamilies in their early remarriage but also emphasizing their advantages. In conclusion, this program development direction expected stepfamilies to resolve their problems and to prevent their family break up as well as to deliver practical benefits.

■ keyword : | Stepfamily | Program Development | Family Relationship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4255)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8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5일

교신저자 : 김효순, e-mail : neri9657@sjcu.ac.kr

1. 서론

지난 수 십 년간 한국가족은 산업화와 현대화로 가족 구조, 가족 가치관, 가족 기능 등의 변화를 겪어 왔다. 즉, 3세대 이상 가족의 감소, 1세대 가구, 무자녀 부부가족, 1인 독신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태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에 기인한 초혼핵가족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재혼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¹⁾는 재혼 가능한 층으로 이어져 결국 현재보다 높은 재혼가족의 출현 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가족형태의 변화를 보인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혼율의 증가와 초혼핵가족 해체, 재혼율의 증가추세로 이어져 나갔다. 1980년대 초혼이혼자의 70~75%가 짧은 기간 안에 재혼을 하였는데, 이들의 약 65%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결혼함으로써 재혼가족을 형성, 재혼의 보편화 현상이 이루어졌다[24]. 자녀가 있는 재혼의 경우 초혼보다 이혼율이 높았으며, 재혼의 60%, 삼혼의 70%가 결혼 5년 이내에 이혼으로 치닫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34].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결혼 가운데 28%가 재혼이고,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7.8세, 여자 43.2세로 이혼 당시 70%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중년기 재혼으로 유자녀 재혼이 늘고 있다[17]. 재혼의 유형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과거의 재혼인 남성과 초혼인 여성사이의 재혼에서 초혼인 남자와 재혼인 여성,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증가하는 재혼가족의 가족욕구를 이해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선행연구에 의해 ‘불완전한 제도’로 불리는 재혼가족은 새로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전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한다[20][26][30][31].

재혼가족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 경계, 역할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새부모와 새자녀 모두는 이러한 기능 형태들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갈 여유가 없다는 한계(경계의 모호성, 충성심 갈등, 새부모-새자녀관계, 훈육방법)에 부딪히게 된다. 가족 가치와 일상의 의례가 서로 다른 가족환경에서 살아온 새 부모들은 배우자와 파트너십을 경험하면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에게 자녀양육문제는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9][12][13][31][39][44]. 이렇듯 재혼가족에게는 새부모-새자녀관계²⁾를 중심으로 한 관계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다. 즉,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재혼가족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미약하였다.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복지 차원의 일반적 가족프로그램으로는 재혼가족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발달과업 및 욕구를 해결해줄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가족의 관계형성을 위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혼가족의 관계향상 가족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이 관계향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방지,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혼가족의 새부모-새자녀관계

2)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의 계부모-계자녀 관계를 새부모-새자녀관계로 명명하기로 한다.

1) 2007년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이혼이 2.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OECD참여국가 평균인 1.7~2.3명, 아시아 주요 4개국 평균 0.9~2.0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며 (OECD, 2009), 2002년 OECD국가 중 순위가 4위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우리 사회의 이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26][37][39]은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어 구성 원간에 의식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가족의 경계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경계문제가 초혼보다 더 모호하며, 모호한 경계는 역할의 모호성과 더불어 기존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증폭시킨다. 경계의 모호성은 새부모와 새자녀 간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를 방해함으로써 재혼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발달과업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응집성을 필요로 하는 재혼가족의 요구와 상충하면서 재혼가족의 청소년이나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즉, 재혼가족 내에서 가족단위의 첫 번째 과업은 가족원간의 응집인 반면, 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독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모·청소년 간 마찰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재혼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 선행연구[7][27][28]에 의하면 청소년을 둔 재혼가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혼가족에서 적응을 잘 하던 어린 자녀도 청소년기가 되면 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아로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46], 자녀의 발달단계 상에서 볼 때도 청소년기는 새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연구결과들[22][31][39][44]에 의하면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비이혼가족의 자녀들보다 높은 수치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공격성, 행동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들을 보인다고 보고된다.

2. 재혼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혼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특히, 재혼부부들에게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철회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33].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혼부부들에 비해 재혼부부는 민감한 주제들

에 대한 대화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1][26]. Hetherington과 Clingempeel[34]에 의하면 재혼부부이건 초혼부부이건 의사소통이 부정적이면 부부간 만족도 역시 낮아진다. Prado와 Markman[38]은 초혼과 재혼부부의 초기단계에서 부부간 만족도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재혼가족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 예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부모 역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종종 어려운 상황을 유발하곤 한다.

재혼가족이 직면하는 두 가지 관계상의 과업은 가족 기능을 위한 부부관계의 질 향상과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46][47]. 부부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부모-자녀관계도 발전하게 된다. 즉, 재혼부부의 강한 유대형성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관계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 기타 가족원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45]. 따라서 많은 연구들[23][36][41]이 강한 부부유대관계를 재혼가족관계의 중요 요인으로 지적하여 왔다. 안정된 부부관계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재혼가족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와 부부관계를 위한 협동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다.

새부모-새자녀 사이에 가족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적인 관계 역시 애매모호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가족원 사이에 높은 역할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재혼가족이 겪는 주된 어려움은 부모역할과 관련 있다[22][25][35]. 이처럼 대부분의 재혼가족들은 가족경계가 모호하고, 가족원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알기 힘들어 역할모호성이나 역할혼란과 같은 역할긴장을 겪는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문제는 재혼가족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족'을 정의함에 있어 가족원간에 의식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가족의 경계설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부모-새자녀 관계는 역할이 귀속적인 초혼가족 관계와는 달리 노력과 수행에 근거하여 충성심과 애정이 획득되고, 유대가 강화되는 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이다. 즉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경계문제가 초혼보다 더 모호하며, 모호한 경

계는 역할의 모호성과 더불어 기존의 스트레스와 역기능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새부모들은 새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원 간에 이를 두고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5][35]. 결국 재혼가족 내 새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새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에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당한 역할긴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역할긴장은 재혼가족관계에 가장 큰 위기가 된다.

재혼가족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단순재혼가족(배우자 한 쪽만이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과 복합재혼가족(배우자 모두 전혼자녀를 데리고 오는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복합재혼가족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 가족역사를 공유한 부분과 안한 부분,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동맹관계의 변화 등이 청소년기의 새자녀가 있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가족구조 내에서 새자녀와 친자녀간에 애정과 관심이 있어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23][46]. 따라서 Cherlin[25]은 양쪽 배우자가 모두 자녀를 데리고 왔을 경우 즉 복합재혼가족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새부모-새자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높은 이혼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재혼가족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결혼 만족도는 더 낮다고 한다[26][28][43].

형제·자매들은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정서적, 인지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재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형제관계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관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재혼가족의 형제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재혼가족의 형제자매 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에서보다 덜 가까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재혼가족의 남자형제들은 정상가족의 형제들에 비해 더욱 경쟁적이고 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여자 형제들은 남자형제들보다는 더 가깝고 서로 보호하려는 관계를 유지한다[34][39]. 이러한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은 청소년 새자녀의 적응에 강력한 요인

이 되고 있다. 형제가 있는 새자녀는 외재화와 우울증 수치는 낮았고 사회적 책임감, 사회성, 자율감, 자기가 치감은 높았다[20]. Gosslin과 David의 연구[32]에 의하면 특히 형(언니)의 경우 동생을 돌보아야한다는 책임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탄력요인(resilience)으로 작용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인 형제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재혼기간과 가족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혼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결속(정서적 친밀감)을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된다[24][26]. Coleman 등[26]에 의하면 재혼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한 재혼부부들은 7년 이하의 부부들보다 자녀 양육 상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재혼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Berg[24]는 재혼기간이 6개월 된 재혼가족보다는 2년 반 정도 된 재혼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결속이 발전하여 가족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가 걸린다고 볼 수 있다.

3.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1.1 가족체계이론(system theory)

가족학의 여러 다양한 이론 중에서도 가족체계이론의 여러 내용들이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계이론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요소와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개발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요소와 맥락을 강조하기 때문이다³⁾. 1970년대 이후로 체계론적 관점은 가족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학 전반에 걸쳐 유용한 이론적 틀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재혼가족 연구들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족체계이론은 재혼 가족의 삶을 이해하는데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47].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생활에 누가, 언제,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지에 관한 체계와 하부체계들의 경계와 규칙에 관한 것이다. 가족은 보다 넓

3) 프로그램개발 과정은 투입-과정-산출로 구성되며, 투입의 요소는 환경, 조직, 개인으로 규정하고 각 요소를 다시 가치와 요구로 구분하고 환경적 가치, 조직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환경적 요구, 조직적 요구, 개인적 요구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투입된다.

은 가족체계 내에서 각 개인들의 집단이자, 부부 하위 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그리고 형제-자매 하위체계라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다. 재혼가족 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새부모-새자녀 관계의 질, 역할 기대의 모호성, 의견일치와 의사결정, 재혼 가족의 유형 등으로 밝혀졌다[25][35]. 특히 새부모의 역할에 관한 신념, 새부모의 역할에 관한 배우자 간의 의견일치과정과 합의 등이 부부하위체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 구성에 포함시킬 것이다.

1.2 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

재혼가족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강점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Saleebey[40]는 강점관점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목적 및 꿈을 실현하게 하거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드러내어 묘사하고, 탐색,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강점관점의 저변에는 인간 정신 속에 내재하는 고유의 지혜와 역경 속에서도 발휘되는 인간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깔려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는 문제지향적 시각을 지양하는 추세인데, 특히 재혼가족의 복잡성을 고려치 않고 새부모와 자녀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 결혼-비교 시각을 특히 비판하였다. 강점관점은 이혼과 재혼을 사회문제나 병리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사회 속에서 확립된 규범적인 생활양식의 선택(normative lifestyle choices)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단지 상호작용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핵가족 비교집단을 사용하며, 대개 재혼가족 내의 가족과정을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점관점과 가족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새부모와 새자녀관계를 묘사하고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1.3 우리나라의 재혼가족프로그램

재혼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로 재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위주의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재혼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는 몇 편 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연구들[2][3][19]은 재혼가족의 유형 중 수적으로 우세하거나 혹은 재혼가족 내 역할 갈등이 심하다고 알려졌던 계모의 역할갈등, 심리적 디스트레스, 적응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 이 가운데 차연실의 연구[19]는 재혼여성들의 역할긴장과 결혼만족을 다루었지만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재혼 가족의 결혼 만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인 재혼 부부 쌍방 또는 재혼가족 자녀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재혼부부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연구로는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의 연구[16]와 장혜경과 민가영의 연구[15]가 존재한다. 하지만 장혜경과 민가영의 연구[15]는 재혼가족의 삶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쳐 결혼만족과 기타 가족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현숙 외[16]의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유일하게 재혼가족 결혼만족도와 부모·자녀 및 친족 관계의 양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있다. 정현숙 외의 연구[16]에 의하면 친족관계와 가족경계가 명료할 때 특히 전혼자녀들과의 역할 경계가 명료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표집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본의 수, 특히 남자 배우자의 수가 5인으로 상당히 적어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렇듯 국내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이론적인 모형 제시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1][5][16]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재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요약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정현숙의 연구[16]에서는 가족체계이론과 발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재혼가족은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녀가 개입된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모형은 총 4회의 프로그램이 매 회기 때마다 2시간 30분씩 진행되

었고 재혼 바로보기, 새로운 관계를 위한 홀로서기,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 부모역할 점검하기 등으로 재혼에 대해 신중히 준비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정현숙의 모형에서는 7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재혼준비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재혼준비도가 증진되었고 재혼에 대해 보다 신중한 인식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현은민의 연구[17]에서는 재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혼가족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포용, 통제, 친밀감의 세 상호작용 영역의 가족 FIRO 모델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로 구성되며, 주 1회 8주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정도 소요하여 주제별강의, 비디오 시청, 사례분석, 토론과 발표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성 검증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박은주의 연구[11]에서는 광주에 거주하는 재혼부부 123쌍을 대상으로 재혼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재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6인의 초기 재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혼부부 간의 문제해결능력, 새부모-새자녀 간 의사소통 촉진방안 및 효율적인 자녀 양육방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 임춘희[13]는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완화, 새부모와의 갈등해결을 다루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지영의 연구[5]에서는 재혼자를 대상으로 Satir 이론을 기반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한 욕구조사 통해 재혼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부모 역할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고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재혼가족의 지지모임 활성화와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검증된 반면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혼가족프로그램(재혼가족 통합서비스 “가족행복 레시피” 혹은 “재혼가족 가족캠프”)은 가족상담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재혼가족의 역동을 이해하는 수준의 기초적 프로그램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거나 일회성 가족이벤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재혼가족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및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재혼부부 관계형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약하였고, 특히 청소년 새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역시 미비하다고 하겠다.

1.4 미국의 재혼가족 프로그램

서구의 경우 가족체계이론과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예비 재혼가족을 위한 재혼준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혼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20][36][42]. Messinger, Walker와 Freeman[37]은 이혼 이후의 재혼준비교육으로 정체감의 확립, 이전 결혼에서 파생하는 문제 해결하기, 재혼 배우자로서의 역할수행 등의 내용으로 4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Ihinger-Tallman 과 Pasley[35]는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위한 자녀양육 기법, 부부 간 양육기법 차이,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기법, 가족관계 증진 기법 등이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Stepping Together(ST)은 Beaudry, Boisvert, Simard와 Parent[22]에 의해 개발된 2시간씩 6회기 프로그램이다. 가족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부부와 자녀(5세 이상) 모두를 프로그램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초혼가족과 재혼가족 간 두드러지는 차이를 소개, 새부모-새자녀의 법률적 관계, 일반적 이슈(현실적 기대), 부부 의사소통 원리, 새부모 권위의 발달, 새자녀 훈육하기. 이슈를 드러내놓고 말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가족상황에 전략적으로 개입하기를 강조한다. 이 프로그램은 강의, 그룹과 부부 활동,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Stepping Together: Creating Strong Stepfamilies (ST-CSS)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12시간용 프로그램으로 Visher부부[44]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론적 배경은 없으며 단지 Papernow의 발달단계에 따라

재혼가족 신화와 현실다루기, 계부모-계자녀 관계향상, 부부관계 강화, 이전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형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률적, 재정적 이슈, 부모역할 전략과 가족이외의 지지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정보는 없다. 학습전략은 강의식과 상호토론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질문지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실제 효과성 검증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Smart Steps(SmSt)는 생태학, 가족체계이론, 생애주기, 가족강점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2001년 Adler-Baeder에 의해 개발된 RE(Relationship Enhancement) 프로그램이다. RE는 기술훈련을 통해 개인 간 관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다. RE 치료의 핵심은 코칭, 모델링, 그리고 긍정적 강화를 통한 9가지 구조화된 기술을 강조하는데, 이 9가지 상이한 기술을 설명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6회기로 진행되며 부부와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지만 마지막 회기에서는 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커리큘럼의 내용은 재혼가족의 신화 다루기, 재정 문제, 법적 문제 및 재혼가족의 발달단계 이해, 배려심 있는 새부모-새자녀 관계 형성, 스트레스 경감하기 등과 같은 재혼가족들이 종종 직면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둔다. 6-17세의 자녀들과 성인들이 참여대상자가 되며, 성인과 자녀들은 90분 동안 각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15 내지 30분 동안 함께 가족활동에 참여한다. Stepping Stones(StSt)은 Walsh[45]에 의해 개발된 6시간 용 프로그램은 가정용과 그룹용이 있다. 자녀의 발달과 일반적인 부모역할 전략위주로 구성되었지만, 자녀의 연령과 혼육문제에 관한 이론적 틀은 공개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참여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참여자들에 대한 핸드아웃 제공), 토론과 활동이 적절히 분배되었다. 1차시에만 상세한 지도자 가이드라인이 있고 나머지 5차시에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한다. Stepfamily Enrichment Program은 재혼가족관계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 관계, 새부모-새자녀 관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 관계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재혼가족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적용점은 아

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재혼가족프로그램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된 영역

출처	프로그램 내용	반영된 영역
정현숙 (2000)	•재혼 바로보기, 새로운 관계를 위한 출로서기,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 부모역할 점검하기 등으로 재혼에 대해 신중히 준비하며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재혼에 대한 이해 배우자 역할 준비하기 부모역할 점검하기
현은민 (2002)	•재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혼가족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포용, 통제, 친밀감의 세 상호작용 영역의 가족 FIRO 모델을 제시.	재혼가족 이해 친밀감 향상
박은주 (2004)	•재혼부부 123쌍을 대상으로 재혼교육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재혼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재혼부부 간의 문제해결능력, 새부모-새자녀간 의사소통 촉진방안 및 효율적인 자녀 양육방안에 초점.	재혼부부 간의 문제해결능력 새부모-새자녀간 의사소통 효율적인 자녀 양육방안
임춘희 (2006)	•프로그램 구성내용으로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완화, 새부모와의 갈등해결 제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다루기 새부모-새자녀간 갈등 해결하기.
김지영 (2007)	•Satir 이론을 기반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한 욕구조사 통해 재혼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과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	의사소통 부모역할훈련
Stepping Together(ST)	•초혼가족과 재혼가족 간 두드러지는 차이를 소개. 새부모-새자녀의 법률적 관계, 일반적 이슈(현실적 기대), 부부 의사소통 원리, 새부모 권위의 발달, 새자녀 혼육하기. 이슈를 드러내놓고 말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새부모-새자녀 관계 맺기 새자녀 혼육 의사소통
Smart Steps (SmSt)	•재혼가족의 신화 다루기, 재정 문제, 법적 문제 및 재혼가족의 발달단계 이해, 새부모-새자녀 관계 형성, 스트레스 경감하기	재혼가족 이해 스트레스 다루기
ST-CSS	•재혼가족 신화와 현실다루기, 새부모-새자녀 관계향상, 부부관계 강화, 이전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형성	부부관계 강화 이전배우자와의 관계

III. 재혼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체계이론과 재혼가족에 대한 강점관점을 바탕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위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살펴보았다.

1.1 심층면접조사 및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지켜야 할 표본추출의 적절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정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는 재혼한지 6개월이 넘었고, 현재 가족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60세가 넘지 않았고, 중·고등학생 자녀(전혼 자녀)를 1인 이상 포함한 유자녀 재혼가족 구성원(즉, 본인이 재혼경험이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계부가족, 계모가족 등의 단순 재혼가족뿐만 아니라 복합 재혼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포함시켰다.

1.2 연구방법

재혼가족의 특성 상 정확한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조건에 맞게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과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이 활용되었다. 심층면접 시의 질문은 예를 들어, 인구사회학적 질문, 재혼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정보, 재혼생활의 긍정적인 요인이나 장단점, 재혼부부의 관계향상을 위한 요인 등은 무엇인지? 등이다.

2012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신문, 가족관련 기관, 상담기관, 재혼관련 카페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 대하여 홍보하였고 이후 2013년 6월 30일까지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면담내용의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면담 필사본에 당사 느낌과 맥락상의 의미 등을 적어놓았다. 소개받은 연구참여자에게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전화통화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이 비구조적 형태의 개방형 면접이었으므로 면접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례마다 2시간 30분 - 3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면접 시, 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 동의서⁴⁾를 각각 1부씩 작성하

여 서명한 후 보관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양해 하에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동의서에 명시된 계약대로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할 경우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와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7인, 남성 2인으로 총 9인이었으며 법적으로 모두 재혼한 상태였다. 평균연령은 여성은 47세, 남성은 53.5세였다. 종교는 기독교가 많았고, 재혼기간은 평균 5.6년이다. 여성들의 경우 전업주부는 사례 4와 사례 9로 대부분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월 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경제수준은 사례 1,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등이 스스로를 ‘중’ 정도로, 사례 7과 사례 9는 ‘상’으로, 사례 2는 ‘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없었고, 전혼 배우자와는 이혼 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지만 자녀의 경우(사례 4, 사례 5와 사례 7), 그들의 친부모들과 만남을 이어 가는 사례는 있었다. 재혼 사유로는 이혼 후 재혼(사례 1,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7, 사례 9)이 사별 후 이혼(사례 2, 사례 6, 사례 8)보다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가족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가족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종교	재혼 기간	재혼 유형	가족유형
사례 1	여	48세	자영업	고졸	중	기독교	3년	이혼 후 재혼	단순재혼가족 남편 전혼에서 아들 둘
사례 2	여	43세	자영업	대졸	하	기독교	5년	사별 후 재혼	복합재혼가족 전혼에서 딸 하나 남편 전혼에서 아들 하나

4)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의 학문적 활용, 연구참여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면접거부권, 면접 시 녹음기 사용허가, 면접

후 녹취록 검토기회 부여, 면접 자료의 안전한 보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례 3	여	51세	남편과 자영업	고졸	중	종교 없음	7년	이혼 후 재혼	단순재혼가족 남편 전혼에서 아들 하나
사례 4	여	54세	주부	고졸	중	기독교	5년	이혼 후 재혼	복합재혼가족 전혼에서 딸 둘
사례 5	남	52세	연구원 행정업 무	대졸	중	기독교	9년	이혼 후 재혼	단순재혼가족 남편 전혼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사례 6	여	47세	사업	고졸	중	기독교	5년	사별 후 재혼	복합재혼가족 전혼에서 아들 하나 남편 아들 하나
사례 7	여	40세	보험업	전문 대졸	상	기독교	3년	초혼	단순재혼가족 남편 전혼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사례 8	남	55세	사업	고졸	중	불교	3년	사별 후 재혼	단순재혼가족 전혼에서 아들 하나
사례 9	여	48세	주부	대졸	상	종교 없음	6년	이혼 후 재혼	복합재혼가족 전혼에서 아들 둘 남편 딸 하나, 아들 하나

1.3 심층면접 분석결과

본 연구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 재혼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욕구도 및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희망 요일은 토요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주 1회 혹은 2 주일에 한번, 1회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약 2 시간을 선호하였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요구도는 재혼에 대한 장단점 및 이해도, 의사소통 방법, 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 친밀감 형성 및 성공적인 재혼부부 그려보기 등 6개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참여연구자들은 재혼부부를 위한 1박 2일 교육프로그램(단시간 귀로만 듣는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직접 실천을 통한 변화는 장기간 지속되고 그동안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나 재혼가정을 위한 특별 심리테스트 프로그램⁵⁾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재혼가족으로 잘 지내기 위한 관계 요인들에 대해 부부 간에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9)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었다.

5) 재혼가족 자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부부간의 친밀감도 더 한층 높아지고 그동안의 쌓였던 나쁜 감정도 쉽게 풀릴 수 있기 위해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프로그램 등의 제안이 있었다.

1.3.1 재혼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재혼 당시의 애의 반응은 거칠게 항의를 하면서도, 때로는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새 엄마에 대한 은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아빠의 재혼에 대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엄마를 맞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같아요. 특별히 엄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재혼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엄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개념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사례 8)

커가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특히 호적상의 문제로 자녀들이 학년이 바뀌고 학교에 등본을 제출할 때마다 힘들어 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사례 2)

때로는 후회한 때도 있었다. 이렇게 힘들 것을 왜 했나 하고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사례 1)

때때로 전 처와 사이에서 발생했던 동일한 성격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인정해 주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무시할 때, 아내에게서도 전처에게서 만들어졌던 동일한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무시하려고하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기가 무척 힘들어요. 아마 이걸 전부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만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까하는 두려움이 들어요.(사례 3)

재혼 당시의 모든 관계, 아내와 나, 내 아이들과 아내가 참 어색했어요. 비록 말을 친밀감 있게 주고받았어도 의식적이고 행동도... 특히 아내의 자녀들과는 더 긴장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나보다는 자신들의 친엄마에게 더 의존적이었고, 나를 좀 경계하는 듯 했어요.(사례 7)

아직까지도 나의 아이들은 새엄마에 대한 관계가 자연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때때로 무엇을 만들어줄 때,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나의 아이들을 이차로 배려하는 것. 물론 아내는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이 말은 재혼 초기부터 아내와 나의 아이들의 관계가 현실적인 진짜 어머니가 보여주는 희생적인 사랑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지요(사례 5)

감정적으로 내 외로움을 새로운 아내가 충족시켜 주고, 생의 활력이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있다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뀐 것이 아주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사례 9)

재혼의 긍정적 측면은 아내와 이혼 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삶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집안일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서로 의지 되고 그래서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 감정적으로 내 외로움을 새로운 아내가 충족시켜 줌으로서 생의 활력이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있다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바뀐 것이 아주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사례 7)

1.3.2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모든 사회가 다 그렇듯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재혼가족은 여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 예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부모 역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종종 어려운 상황을 유발하곤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문제들이 재혼부부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초혼가족의 부모, 자녀 역할에 비하여, 새부모와 새자녀의 관계와 역할을 규정하는 명확한 역할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새부모들은 새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개입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혼란을 느끼며, 그 정도에 대해 가족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따라서 많은 연구 [22][25][30]에서 새부모의 부모 역할문제를 재혼가족이 겪는 주요 긴장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를 안은 채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재혼부부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상호 간에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나(사례 3), 의사소통 기법 등(사례 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룰 때 야단도 쳤어요 항상 친엄마도 아닌데 때리니까 지 하냐고 하지만 저는 때리면서도 감싸줘요 내가 야단치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사례 1)

그런데 아들 둘이 또 있잖아요. 담담하더라고요. 담담하고 그런데 애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야 나도 편하고 그렇게 뭐가 있냐하면 남편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반응인데 내 자식을 뭐라고 하면 내가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물론 얘기아빠도 마찬가지겠지. 저녁에 만약에 내가 아이들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쫓아가서 신경을 끊어. 아이들, 당신 자식이기 이전에 내 자식이야 내가 교육을 시켜. 당신이 하는 것 아니야(사례 2)

남편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본다igo 우리 애를 야단 치는데.. 내가 작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콘트롤 하게 내버려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 속이 그냥 속이 썩는 거예요. 애를 불려서 혼을 내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경우에 애를 혼낼 경우에는 혼을 내는데 남편이 우리 애한테 하는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지. 제 감정이 그런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더라고요(사례 6)

특별히 아내의 애들과는 더 긴장되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 아이들은 나보다는 자신들의 친 엄마에게 더 의존적이었고, 나에게서는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었어요. 물론 이점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하지만 네 명의 아이들은 자주 맥도날드나 피자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거의 친 형제자매들처럼

지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둘들 씩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옷 같은 것은 절대로 자신들의 친 형제들 끼리만 공유되지 의붓형제들 간에는 허용이 안 돼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서로를 많이 다투고 우리가 나서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새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자연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아내가 때때로 무엇을 만들어줄 때,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고 우리 애들을 이차로 배려하는 것이 보여요. 물론 아내는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사례 5)

부부 간에 대화술 교육이 필요해요.(사례 6)

상호간에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 의사소통 기법 등이 좋겠어요.(사례 3, 사례 8)

1.3.3 새자녀와 관계 맺기:가족경계와 역할모호 해결하기

전혼 해체 후 성공적인 재혼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경계와 역할의 성립이다. 재혼가족의 유형은 체계간의 경계와 역할 기능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 과업은 재혼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재혼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명확한 경계설정과 따른 역할 규정의 부재와 유지의 어려움이 재혼의 이혼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자녀들과 새 엄마 사이에서 친밀감을 나누거나,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거나, 애정 어린 부탁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역시도 아내의 자여들과 내 친자식들처럼 돌보는 것에는 어색함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사례 5)

의외로 처음부터 아줌마 할 때마다 주의를 시키고 엄마라고 불려야한다고 하니깐 새엄마라고 하다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예 엄마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사례 2)

1.3.4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 다루기

문제/갈등해결 기술은 개입된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가능한 한 접근한 해결을 고안하도록 돕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혼부부들은 가정 내의 일을 상의한다거나 잠시 돌이켜 외출할 때면 꼭 의견분쟁이 생기고 쉽게 풀리지 않는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사례 2, 사례 5, 사례 8). 그 이유는 서로가 자신의 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개인차도 있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문제 등).

현재의 재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참고 양보하는 것으로 처리하지만 갈등 후에 느끼는 기분은 분노심이 많이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아쉬움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이지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에게 대한 권위를 만들어 달라는 무언중의 요구인데.. 나의 의미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사례 4)

그동안 지금의 남편과의 이혼을 여러 차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살았어요. 갈등이 전부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배우고 싶어요. (사례 8)

어느 순간 내가 남편을 바꾸기보다 나 자신이 바뀌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 남편도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가하는 생각이 때때로 들어요.(사례 3)

1.3.5 친밀한 부부관계형성

일반적으로 가족의 성공은 많은 부분이 부모-자녀 하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새부모-새

자녀관계가 재혼생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재혼의 부부하위체계는 부모하위체계와 동시에 형성된다는 점에서 초혼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부부만의 강한 연대감을 형성시킬 시간과 자원이 허락되지 않고 이것들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이 자유로이 부부하위체계를 넘나들게 되어 부부간 친밀감 형성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가 있다. 또한 부부간의 연대 의식이 부족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긴장관계 속으로 자녀들이 연합되어 들어가 자녀의 역할수행에 역기능이 발생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부부관계가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새부모-새자녀 체계에 의해 갈등과 긴장감을 겪을 것이다. 새로운 하위체계에서 재혼부부는 배우자와의 관계, 과거와의 양가감정을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알기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재혼부부들이 충분히 유대관계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애착에 얽매이는 취약함을 보이고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재혼 생활에 종결을 짓게 된다.

남편은 늘 자기 자식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래요 자식이 아내보다 우선이라고 이런 문제로 현재도 갈등을 많이 겪고 그런 남편이 서운할 때가 많아요(사례 8)

나는 내 아이들을 돌봐주고 나를 뒷바라지 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서로 의지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80% 정도는 바라는 바를 채우면서 살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힘들어도 나머지 20%도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채워지면 좋겠어요 100%가 된다면 그 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사례 1)

1.3.6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 그려보기

재혼부부들은 안정적인 부부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포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그려볼 수 있는 함께 멀리 바라보기가 필요한 것 같다. 아래 사례에서는 책이나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부관계 향상 프

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신을 내려놓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책이나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사례 8)

막내아들이 2년 후면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는 데 그 때라면 아내와 나 둘이서 별 충돌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지요 어차피 아들은 부모님 품을 떠나는 거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해하게 되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어요(사례 9)

건강하고 성숙한 재혼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나 약한 부분, 삶에 대한 궁극적 목표, 배우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명확하다면, 재혼 가정이 성공적인 거 아닐까요(사례 5)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초기 재혼의 시간을 지나서 약 4년 이상 지나고 최근에서부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 같기 때문이죠. 다투고, 감정이 노출되고, 성격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서 재혼생활에서 새로운 부부생활, 애와의 관계 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악순환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 때문에 더 가정에 관심이 가고 조심스러워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사례 2)

IV. 재혼부부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은 재혼생활에서의 주요 문제들(부부관계나 새부모-새자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점검을 통하여 재혼생활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공적인 재혼가족의 발달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족관계 향상에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재혼가족관련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조사와 재혼가족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개략적으로 파악된 국내외 재혼가족의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이론적 내용들 및 재혼가족 대상 심층면접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요구도의 특징은 재혼가족 초기에 재혼가족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 외에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혼할 당시 재혼자들은 새자녀의 존재가 재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현실적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재혼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 들여 한 가족으로 부르거나, 서로 친밀감을 나누다가거나 배려하면서 애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걸린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한부모가족으로 있을 때에는 뭔가 부족해보이던 모습에서 재혼가족을 형성함으로써 양부모 핵가족의 모습으로 주의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고 교외에 나가거나 외식하려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히는 재혼가족들이 많았다. 물론 양부모 핵가족모델을 우선시하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편견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재혼가족구성원 스스로 외부인의 가족편입에 상당히 만족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친부모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다움, 어머니다움, 따뜻함과 같은 친밀감을 느꼈다는 사례들(사례 7, 사례 8, 사례9)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관점에 기반한 재혼가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로 드러난 프로그램 요구도로는 새자녀와의 호칭에 따른 가족경계 문제 등 새자녀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과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요구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재혼 가족관계는 초혼보다 복잡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 시기는 누가 가족원이고 아닌지에 관한 외부경계와 재혼 가족 내에서의 규칙, 규율, 동맹과 소속감을 의미하는 가족 내부 경계를

재설정하게 되면서 혼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대한 요구도는 재혼가족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부부관계의 강화와 부모-자녀관계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과업도 연관된다. 재혼가족에서도 부부관계가 안정적이라면 부모-자녀관계도 발전하게 된다고 알려있는데[45], 재혼부부의 강한 유대형성은 결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필수조건이자 긍정적인 부모-자녀의 관계 형성 및 발달에 도움을 주고, 기타 다른 가족원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완충장치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성공은 많은 부분이 부모-자녀 하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자녀 재혼 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관계는 재혼생활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만일 재혼가족의 부부관계가 친밀감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새부모-새자녀 체계에 의해 갈등과 긴장감을 겪을 것이다. 새로운 하위체계에서 재혼부부는 배우자와의 관계, 과거와의 양가감정을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알기 시작하게 된다. 또한 새부모는 함께 동거하고 있는 친자녀와 새자녀와도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형성해야 하고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를 돌보아야할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이 시기에 재혼 부부들이 충분히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애착에 얽매이는 취약함을 보이고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재혼 생활에 종결을 짓게 된다.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생활양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재혼가족들은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 즉 친부모들은 그들의 역할 기대에 관한 규범적인 정의를 공유하고 있지만, 재혼가족의 경우 새부모와 새자녀는 서로에게 혹은 이전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행위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엄마라는 역할에 있어서도 초혼의 계모와 재혼의 계모역할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를 것이다. 초혼의 계모는 양육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새자녀의 양육문제를 더욱 큰 스트레스로 여길 수도 있다. 초혼의 계부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목표

본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가족관계 향상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재혼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한다.
- 둘째,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을 기른다.
- 셋째, 새자녀와 관계 맺기: 가족경제와 역할모호를 해결한다.
- 넷째,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를 다룬다.
- 다섯째,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 여섯째,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을 그려본다.

2. 프로그램 대상과 운영

본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재혼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매 회기 참여인원은 10~20인으로 제한한다. 본 과정은 총 6회기로 구성되며 1회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소요한다. 매 회기는 15분정도의 도입부분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강의와 참여자들의 활동내용 및 15분 정도의 마무리로 구성된다.

3.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따라 총 6회기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1회기 프로그램

목표	재혼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하기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적극 참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 - 참여자 소개하기 - 초혼과 재혼의 차이 등 재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재혼으로 인한 장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 재혼가족이 겪는 기본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인식하기 	과제

표 4. 2회기 프로그램

목표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을 기른다.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부부 간 대화를 점검한다. - 부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학습하기 (I-Message 훈련하기)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하기 - 공감, 경청능력 -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끈다. - 적극적 감정표현하기. 표현기술은 그들 자신의 감정사고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고, 타인에 대해 덜 공격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 부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훈련하기 	과제: I-Message 하루에 1회 이상 연습하고 내용을 적용해 오기

표 5. 3회기 프로그램

목표	새자녀와 관계 맺기: 가족경제와 역할모호를 해결하기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재혼가족의 경제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 새자녀에 대해 이해하고 새자녀가 겪을 경제혼란과 역할혼란에 대해 이해하기 - 경제모호와 역할모호로 인한 부부 간 갈등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새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해 해결방법 찾아가기 - 부부 간 양육태도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점 찾기 - 친구같은 부모되기에 대해 훈련하기 	과제

표 6. 4회기 프로그램

목표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를 다룬다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평소 경험하는 부부간의 갈등유형을 이해하기 - 부부 간 갈등 인식 대처하기 - 갈등이나 문제발생 시 해결방법 찾아가기 - 부부 간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법 찾기 - 분노조절 예방 및 대처법 훈련하기 - 갈등 장면을 주제로 집단성원과 나누기 - 배우자와 공감적 대화기법을 습득하여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적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과제

표 7. 5회기 프로그램

목표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차이점(가치관, 성격, 기호 등) 찾아보기 - 배우자 간 긍정적인 부분 발견하기 -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시키다. - 부부 역할을 점검하고 느낀 점을 나눈다. - 이전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하기 	과제: 배우자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기

표 8. 6회기 프로그램

목표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을 그려본다.	비고
회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 지난 회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번 회기의 내용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 간단히 언급한다. - 1 회기부터 5회기까지의 내용 복습하기 - 미래의 부부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 해본다. -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인식한다. - 사후검사 	

4. 프로그램의 실시와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동일한 시기에 실험집단과 유사통제집단 사이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적용 직후, 역시 동일한 시기에 두 집단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별 두 번의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재혼가족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연구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20쌍의 재혼부부로서 그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은 10인(혹은 10쌍), 참여하지 않는 유사 통제집단 10인(혹은 10쌍)으로 구분한다.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혼가족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재혼가족의 적응 척도인 Stepfamily Adjustment Scale(SAS)⁶⁾를 활용할 것이다. SAS 척도는 재혼가족

6)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혼가족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SAS의 적용 척도는 서구에서 재혼가족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된 척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김효순의 논문(2006)에서 처음 활용되었다. 김효순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가족적응에 따른 문화 상의 차이와 번역상의 표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련

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기 기입식 측정도구이며 재혼가족의 결속⁷⁾과 부부간 만족도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혼가족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부부간 의사소통 정도는 김미정[1]이 불안한 부부의사소통 검사(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사용 할 것이다. 부부의사소통검사는 46문항의 자기진술형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부 간의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총 득점 범위는 0에서 136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나타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부모-새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재혼가족의 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혼부부 관계형성 프로그램 희망 요일은 토요일이었으며, 주 1회 혹은 2 주일에 한번 시행하고, 1회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약 2 시간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의 요구도 분석결과는 재혼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 새자녀와 관계 맺기, 가족경계와 역할모호 이해,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를 다루기,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 그려보기 등 6개의 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재혼가족들이 관계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능력, 재혼부부의 친밀감 형성 등이 성공적인 재혼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선행연구들[25][33][46]과 일치하는 결과

전문가와 가족학자의 자문을 구하여 내용을 검토하였다. 신뢰도 검사결과 가족행복도, 결속력 및 결혼행복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79, .81, .80으로 나타났다.

7) 재혼가족 결속력(cohesion)은 “다른 재혼가족과 비교할 때 내 배우자와 계자녀와 나는 매우 친밀하게 지낸다”,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함께 하려고 계획하면 다같이 동참하는 편이다”, “우리집은 정서적인 분란이 많다” 가족문제로 걱정하거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등 7문항이다.

8)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나의 재혼생활은 행복한 편이다”, “배우자와 나는 문제해결방식에서 서로 만족하고 있다”, “나는 배우자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우리의 성생활은 만족스럽다”, “나의 배우자는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등 10문항이다.

를 보이고 있다. 즉, 재혼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재혼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재혼부부간 역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6개의 범주들은 재혼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역할,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 능력을 기른다, 새자녀와 관계 맺기, 가족경계와 역할모호를 해결한다, 문제해결, 갈등 및 스트레스를 다룬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재혼가족 모습을 그려본다라는 프로그램 목표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혼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요구도의 특징은 재혼가족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혼부부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법, 문제해결 능력, 친밀감 증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혼부부들에게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철회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므로 차후 재혼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나 재혼부부 긴장완화 프로그램 등의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화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프로그램 요구도의 특징은 재혼가족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미래에 함께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혼가족 나름의 미래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재혼부부를 위한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이나 재혼가정을 위한 특별 심리테스트 프로그램⁹⁾ 등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재혼에 대한 사전준비나 사전교육이 미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혼가족으로 잘 지내기 위해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야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은(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9) 재혼 전에 준비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혼 후에도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요구도에서는 이전배우자 문제나 시댁문제 및 재정문제를 프로그램 요구도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차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새롭게 적용·실천되고 있는 강점관점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재혼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고정관념과 아울러 재혼가족을 가족관계와 기능 면에서도 매우 취약하다고 보는 결손관점 내지는 문제지향적 관점을 주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혼가족에 관한 결손관점이나 문제 지향적 관점 외에도 재혼가족의 강점을 바라보고 재혼가족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재혼가족과 복합재혼가족 등의 재혼가족 유형에 따른 재혼부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요구도 내용이 자료수집의 미비로 차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재혼가족에 관한 연구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한 현실에서 향후 재혼부부의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재혼부부의 재이혼율을 막고 재혼부부의 유대를 강화하여 재혼가족의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입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재혼 가족 상담이나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임상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미정,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 김연옥, “해체된 재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재혼호를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99권, 제2호, pp.171-195, 2007.
- [3] 김연옥, “재혼가족 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권, pp.25-31, 2002.
- [4] 김종숙 역, *재혼가족관계*, L. H., Ganong and M. Coleman, 2000, *Stepfamily Relations*, 서울:한국

9) 재혼가정의 자녀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부부간의 친밀감도 더 한층 높아지고 그동안의 쌓였던 나쁜 감정도 쉽게 풀릴 수 있기 위해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프로그램 등의 제안이 있었다.

- 문화사, 2002.
- [5] 김지영, *재혼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지프로그램 개발 연구-사티어성장모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6] 김효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역할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 제13권, 제2호, pp.187-213, 2006.
- [7] 김효순,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4권, 제4호, pp.65-85, 2007.
- [8] 김효순, “새부모 양육태도 유형과 재혼가족 청소년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30권, pp.245-268, 2010.
- [9] 김효순, 엄명용,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1권, pp.75-102, 2007.
- [10] 김효순, 하춘광,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 새 부모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3권, 제1호, pp.137-168, 2011.
- [11] 박은주,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12] 양세혁, “<Brave>와 <Finding Nemo>에 나타난 부모자녀 캐릭터 사이의 갈등구조 분석:MBTI 유형역동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4-37, 2013.
- [13] 임춘희,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3권, 제3호, pp.79-102, 2006.
- [14] 임춘희,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관계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743-760, 2006.
- [15] 장혜경, 민가영,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 [16] 정현숙, 유계숙, 임춘희, 전춘애, 천혜정,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pp.1-13, 2000.
- [1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13.
- [18] 현은민,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3호, 2002.
- [19] 차연실, *재혼모의 역할긴장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0] P. Adler-Baeder and K. Higginbotham, “How marital dissolution affects children? Variations by age and sex,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5, pp.540-549, 2004.
- [21] J .D. Afifi and P. Schrodt, “Uncertainty and the avoidance of the state of one’s family in stepfamilies, post-divorce single parent families, and first marriage famili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9, pp.516-532, 2003.
- [22] M. Beaudry, J. M., Boisvert, M. Simard, C. Parent, and M. C. Tremblay, “Communication: A key component to meeting the challenges of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42, No.1, pp.85-104, 2004.
- [23] E. C. Berg, “The effect of perceived closeness to custodial parents stepparent and nonresident parents on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40, No.1, pp.60-68, 2003.
- [24] B. A. Chadwick and T. B. Heaton, *Statistical handbook on the American family*, Phoenix ,AZ:Oryx, 1999.
- [25] A. Cherlin, “Remarriage as an incomplete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4, pp.634-650, 1978.
- [26] M. Coleman, L. Ganong, and M. Fine,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pp.1288-1307, 2002.
- [27] J. Dunn, T. G. O’ Connor, and H. Cheng,

-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between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ial fathers, and nonresidential stepfa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34, No.2, pp.223-234, 2005.
- [28] J. A. Felker-Thayer, B. M., Stoll, G. L., Arnaut, and D. K. Fromme, “A Qualitative Analysis of Stepfamilies: The Steppar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38, No.1, pp.177-189, 2002.
- [29] L. H. Ganong and M. Coleman, “How society views stepfamili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Vol.26, pp.85-109, 1997.
- [30] J., Gonzales, “Pre-family Counselling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0, No.2, pp.148-157, 2009.
- [31] J. Gosselin,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Psychosocial Adjustment in Stepmother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1, No.2, pp.108-123, 2010.
- [32] J. Gosselin and H. David,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48, No.1, pp.29-53, 2007.
- [33] K. Halford, J. Nicholson, and M. Sanders, “Couple Communication in Stepfamilies,” *Family Process*, Vol.46, No.4, pp.471-483, 2007.
- [34] E. M. Hetherington and M. Stanley-Haga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Vol.40, pp.129-140, 1999.
- [35] M. Ihinger-Tallman and K. Pasley, “Stepfamilies in 1984 and Today-A scholarly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Vol.26, No.1, pp.19-40, 1997.
- [36] M., Marcia, “Stepfamily Enrichment Program: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Remarried Couples,”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Vol.31, No.2, pp.135-152, 2006.
- [37] L. Messinger, K. N. Walker, and S. J. Freeman, “Preparation for Remarriage Following Divorce: The Use of Group Techniques,” *American Journal Orthopsychiat*, Vol.48, No.2, pp.263-272, 1978.
- [38] L. M. Prado and H. J. Markman, Unearthing the seeds of marital distress: What we have learned from married and remarried couples. In M. J. Cox and J. Brooks-Gunn(Eds.), *Conflict and cohesion in families: Cause and consequences*(pp.51-85), Mahwah, NJ:Earlbaum, 1999.
- [39] K. B. Rodgers and H. A. Rose,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ce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4, No.4, pp.1024-1038, 2002.
- [40] D. Saleebey,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Extension and cautions,” *Social Work*, Vol.41, No.3, pp.296-305, 2009. Power in the people. In D. Saleebey (Ed.),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1996.
- [41] G. M. Sarve, S. Jay, and M. A. Mason, “Stepparents on Strpparenting: An Exploratory Study of Stepparenting Approached,”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41, No.3, pp.81-97, 2004.
- [42] V. Satir,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nce and Behaviorbook, 1972.
- [43] C. Song, M. Benir, and J. Glick, “Dropping out of high school: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transition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53, No.1, pp.18-33, 2012.

- [44] B. L. Stoll, G. L. Arnaut, D. K. Fromme, and J. A. Felker-Thayer "Adolescents in stepfamilies: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44, No.1, pp.177-189, 2005.
- [45] E. Visher and J. Visher,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 Brunner/Mazel, 1996.
- [46] W. M. Walsh, "Twenty major issues in remarriage families," *Journal of Counseling of Development*, Vol.70, pp.709-715, 1992.
- [47] M. C. Willetts and N. G. Maroules, "Does remarriage matter?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living with cohabiting versus re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41, No.3, pp.115-133, 2004.

참 고 문 헌

김 효 순(Hyo-Soon Kim)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가정관리학사
 - 2000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행정학석사)
 - 200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0년 9월 :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복지 전반